| 현불 논단 |

세계가 놀란 '명상리더십'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태국 동굴소년의 기적적인 생환
수행자 출신 코치 역할이 밑바탕
불안에 떠는 아이들 품에 안으며
명상교육으로 마음 다스리게 해
급박한 상황에도 흥분하지 않고
'愛語'의 미덕으로 생명 살려내
수많은 매체, 명상리더십에 관심
'동사' '사섭법'이 핵심적 요소

얼마 전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의 탐루앙낭논 동굴에서 '무 빠(야생 멧돼지)' 축구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축구선수 12명과 코치가 조난되었다가 구조대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약 2주 만에 전격 구출된 일이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소년들이 추위와 부족한 산소, 그리고 동굴 내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전원 생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코치의 명상리더십을 들면서, 수행자 출신인 엑까본 찬따웡(25) 코치의 명상과 마음 다스리기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다른 매체들도 자기 마음의 안정을 기반으로 대중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바꾸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는 '명상리더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명상리더십의 요소는 많지만 이번 조난 극복 과정은 사섭법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굴에서 아이들을 돌본 엑까뽄 코치의 희생과 지도력에 대해 언급한 군의관은 "음식이 공급된 후 엑까뽄 코치는 아이들이 충분히 식사할 때까지 기다린 뒤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코치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한 후 자신은 거의 공복 상태에서 버텼다고 한다.

배고픔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생존의 욕구가 발동하면 자신부터 챙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신의 먹거리를 오히려 아이들에게 건네며 다독이고 있었다는 것은 보시가 생활화된 명상리더의 본보기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했다는 것은 법보시를 통해 소년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무외시'를 실천한 것이다.

이어서 주목할 점은 소년들의 진술을 토대로 취재한 다음 대목이다.

"엑까뽄 코치는 아이들에게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체내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또 하루 먹을 과자의 양을 정해놓고,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흙탕물 대신 동굴천장에 맺힌 맑은 물을 마시라고 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코치의 대화 기술이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필요한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팀원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애어'는 "거칠거나 성내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대중들을 이끄는 것"을 말하는데 어둠 속에서 온화한 말로 전달한 코치의 그 항목들이 모두를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깜깜해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3일째쯤 됐을 때부터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워 일부는 소리 내 울기도 했다. 엑까뽄 코치는 이런 아이들을 안아주며 안심시켰고, 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잠이 들 때까지 안고 있었다"고 한다. 심리치료 기법 중 '안아주기'의 효과는 매우 깊고 크다. 엄마의 안아주기는 사랑을 내재화하여 아이를 성장시키고, 가정의 안아주기는 사회성을 내재화하여 관계를 성숙시킨다. 코치의 안아줌은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위인 '이행'의 끝판왕이다. 덕분에 차츰 안정을 찾은 소년들은 좁은 공간에서 체온을 유지했고, 결국 생사의 기로에서 삶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지난 12일 작전명 '멧돼지를 집으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것을 보며 명상리더십의 요소인 '동사'와 사섭법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동사'는 명상리더십의 화신인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 하고 화복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실천행이 분명하고, 사섭법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하는 명상리더의 반야용선임에 틀림없다고 말이다.

特別寄稿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불교계 언론이 두 편으로 나뉘어 있어 중립적인 매체인 '현대불교'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며 본지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설악무산 스님의 49재를 즈음해 현재 불교계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글의 일부를 싣는다. 〈편집자 주〉

마지막 희망 불씨를 붙잡아 주세요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장

초복 지나는 칠월 하늘에 한 자락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스님 49재 있었던 신흥사 건너편 산봉우리에는 다비식 감싼 솜털 같은 구름들 찬란한 군무 펼치고 있었겠지요.

불교계와의 인연이 넓지도 깊지도 않은 제게 스님과의 인연은 불교를 넘어서 시와 삶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었습니다.

스승 가산지관스님과의 인연 이후, 어쩌면 두 번째로 제게 주어진 '스님'과의 만남이라는 의미로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불교평론〉 발행인과 편집위원이라는 관계로 시작된 우리 인연은 매해 정초에 세배를 올리거나 스님의 드문 서울 나들이길에 맞춰 이루어지는 짧은 만남 정도로 이어졌지만, 가끔씩 펼쳐보는 〈아득한 성자〉 속 벼락같은 시어들이 스미는 가르침으로 자주 뵙고 있다는 느낌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정초에는 편집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아 뵙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주신 '어느 날 문득 눈 들어보니/ 사방이 천 길 낭떠러지인 절벽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실존적인 화두(話頭)로 제게 내내 살아 있습니다.

스님! 지켜보고 계신지요? 지금 조계종단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88세의 설조 노스님께서 종단의 변화를 사자후처럼 외치며 벌써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종단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스님들의 범계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습니다.

스님 평소 말씀처럼 2천년 가까이 살아낸 고목 중 고목인 우리불교가 겪어야 하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목이 나무라는 이름을 유지하려면 새해가 되면 파란 싹을 키워내는 힘을 보여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그런 싹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 죽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만 주변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등불을 설조 스님께서 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희망의 싹들이 우리 사부대중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스님께 결제나 해제법어를 들은 이 땅의 수좌들과, 선시(禪詩)를 통해 일상의 파고 넘어설 수 있는 기운을 얻은 재가자들이 희망입니다.

부디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 자리 잡아 쉽게 자라나지 못하는 그 싹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스님과의 범상치 않은 인연, 49재라는 계기 맞아 겨우 되새기는 저의 불민함 또한 따스한 손잡음으로 흔쾌히 받아주실 것 같은 날이 시나브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외부 필진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社說

어린이 포교, 부산 불교계를 롤모델로

오랜 세월 '할머니의 종교'라는 오명을 안은 채 포교를 해온 불교계가 최근 '눈높이 포교'를 통해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아직 이웃종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천진불 포교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를 발견한 셈이어서 앞으로가 기대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통도사 어린이법회다. 통도사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문화재지킴이' 봉사활동을 제외하면 순수 어린이법회 참석 아동은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통도사가 7월 한 달에만 벌써 48명의 어린이가 법회에 참석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숫자다.

통도사는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 '숲 체험 명상놀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숲예술창의력사업단과의 협약을 통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대안 교육을 제시해 아이들과 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범어사 역시 청소년진흥센터와 부산외국어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며 사찰에서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다른 사찰들의 어린이합창단과 스포츠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다만 현재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사찰 움직임이 부산과 영남권에 집중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모들은 사찰의 변화를 적극 반긴다. 그간 밋밋한 사찰의 일반법회에 아이들을 데려가기 힘들고, 특별히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없어 부모 스스로도 사찰 방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불교인구 300만 명 감소'가 어느덧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요즘, 불교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눈높이 포교에 나서길 기대한다.

당사자 뺀 공원법 개정 안된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 · 도립공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찰 토지를 소유한 조계종과 어떠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 공원구역의 육상면적 약 3,972㎢ 중 사찰지는 약 279㎢인 7% 수준으로 8440만평에 달한다. 이 같은 공원지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불교계는 공원 정책 안에서는 피해자임이 자명하다.

우선, 사찰지와 사유지를 포함하고서 '국립공원'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국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마치 모든 공원 토지가 100% 국 · 공유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이 '자연생태' 중심으로 설계돼 전통사찰보존지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유네스코에서 7개 산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산사라는 위치적 이유도 있지만, 그 안에 형성된 수행 · 신앙 등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유산'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세계적 유산 인식은 '종합 · 총체적 문화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일선 정책들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공원과 관련 문화재 정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 · 도립공원에는 적지 않는 산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원법은 자연과 문화유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존 ·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불교계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 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 부처의 태도는 무례한 행위다. 지금이라도 불교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귄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